

유승민-안철수, 지방선거 등판 놓고 신경전

국민의당 출신 지역위원장들 “선당 후사로 공동출마해야”

劉 “당 화합 해치는 행위”...安, 서울시장 출마선언 헤프닝

바른미래당의 창당을 이끌어온 유승민 공동 대표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6·13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원외 지역위원장 100여명은 28일 당 지도부에 ‘안 위원장과 유 공동대표가 당선 가능한 지역에 선당후사 정신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 성명에 동참한 지역위원장들은 대부분 국민의당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창립자의 동반 출격으로 이른바 ‘수도권발 돌풍’을 일으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유 공동대표는 수차례 출마 요구를 일축해 왔다. 이날도 유 공동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출마 관련 성명서에 대해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어 “제 뜻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출신의 수도권 원외위원장들도 지난 8일 안 위원장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유 공동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공동대표가 이 같이 반발하는 것은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유 공동대표를 흔들어 당내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 유 공동대표 역시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바른미래당 출신의 한 당직자는 “국민의당 출신들이 스크럼을 짜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며 “유 대표가 출마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요구하고, 반대급부로 공천권을 보장받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유 공동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내놓는 한이 있어도 선거에 출마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동력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서울을 비롯해 바른미래당의 당선이 가능한 지역에서 공천권을 양보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합당 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지역위원장을 상당 부분 그대로 둔 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결정이 늦어지는 것도 지방선거 공천권을 포함한 당내 파워게임의 연장선에서 보고 있다. 안 위원장이 애초 당무에 복귀하면 서민생특위 위원장이 아닌 인재영입위원장을 선택한 것 역시 최대한 자기 사람을 심어 장기

적으로는 지방선거 이후 열린 전당대회에서 ‘우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오는 7~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쥐려면 2020년 제21대 총선 공천 때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오전 한때 안 위원장이 오후 2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사실 정보지가 돌고 일부 언론까지 이를 보도하면서 안 위원장 측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폭주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니다. 확정되면 서울시민에게 가장 먼저 알리겠다”고 부인해 소동이 일 단락됐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 공동대표 측에서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유 공동대표는 안 위원장을 향해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안 위원장이 여전히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 후보

이용섭, 출산 보육분야 4대정책 제시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광주 만들기’를 위한 출산 보육 분야 4대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출산·보육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매 자녀 출산시 20만 포인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각 10만 포인트를 지급해 보육시설은 물론 전통시장, 문화·체육시설 등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함으로써 현금 지급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 입원 진료비 30만원 지원 ▲임산부 이동권을 보장하는 맘 택시 운영 30만원 지원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박혜자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광주’ 만들것’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28일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 에너지, 환경, 복지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 되는 ‘S-MART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제각각의 환경오염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버스정류장 등에 간이측정기를 설치하고 환경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광주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치매노인 관리 등 복지 사각지대도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진 ‘광주 대변인 되겠다’ 출마선언



김명진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8일 “호남 민생 쟁기는 광주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22년 동안 여·야 정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국회, 공기업 등에서 국정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준비의 시간을 거쳤다”며 “에너지는 응축됐고 생각은 정돈됐고 심장은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분배 있는 정치로 호남 개혁정치의 자존심을 지키고, 호남 개혁정신을 계승·발전시키겠다”며 “당당하게 호남 민생 쟁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15일 예비후보 등록 후 ‘골목 경제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송갑석 ‘문대통령 베트남·UAE 순방 큰 성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개국 순방과 관련해 “이번에 마무리된 대통령 순방은 명분과 실리를 획득한 뜻 깊은 행보였으며 그 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베트남 순방에서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 채택,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불 목표 협력,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면서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전진기지 확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UAE와는 석유·가스분야 250억 달러(약 26조 원) 사업 제안 등 성과와 더불어 ‘100년을 함께 열어가 함께’로 관계를 격상시켰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봉주 정계은퇴 선언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성추행 의혹 거짓 해명 논란

성추행 의혹에 거짓 해명 논란까지 낳은 정봉주 전 의원이 28일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와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출마를 철회하겠다”며 “모든 공적활동을 접고 자숙하고 또 자숙하면서 자연인 정봉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짓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10년 통한의 겨울을 뚫고 찾아온 짧은 봄날이었지만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한 고소를 전날 취소한 데 이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한 사건 당일 해당 장소에 자신이 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해 검토해본 결과 그 호실에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고 즉시 경찰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캠프를 꾸려 선거운동 준비에 돌입한 정 전 의원은 지난 7일 전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한 뒤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 측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그는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선거 원주 의혹을 드러냈으나 피해자가 성추행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시하자 고소를 취소했다. 그간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선거구 쪼개기 야합 중단하라”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등 당직자들이 28일 오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선거구 쪼개기 야합 규탄’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자문단 박지원·정동영 등 46인 선정

단장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2000년·2007년 회담 주역들 포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28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원로 자문단 21명과 전문가 자문단 25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로자문단에는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우선 임동원 전 장관은 2000년 5월 평양을 방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1차 남북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는 등 남북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다.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박재규·정세현·이종석·이재정 전 장관 등도 자문단에 포함됐다. 정세현 전 장관은 2002년 1월 국민의 정부

통일부 장관에 임명돼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로 2004년 6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냈고 이재정 전 장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다.

여기에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 재임 시 비밀 투사로 북측 인사를 만나 1차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2005년 통일부 장관 재임 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 같은 당 정동영 의원도 포함됐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도 원로 자문단으로 활동하게 됐다.

앞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험이 많으신 원로, 전문가, 소장그룹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오신 분들을 자문단에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전문가 자문단에는 고유환 동국대 교수와 김연철 인제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권 관계자는 “자문단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 잘 반영된 것 같다”며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